

북한개발소식

2023 SEP

09

통권 215호

이달의 주제

북한의 식량문제 동향과 우리의 기도

탈북민 수기

이끄심 - 9화 - 하나님의 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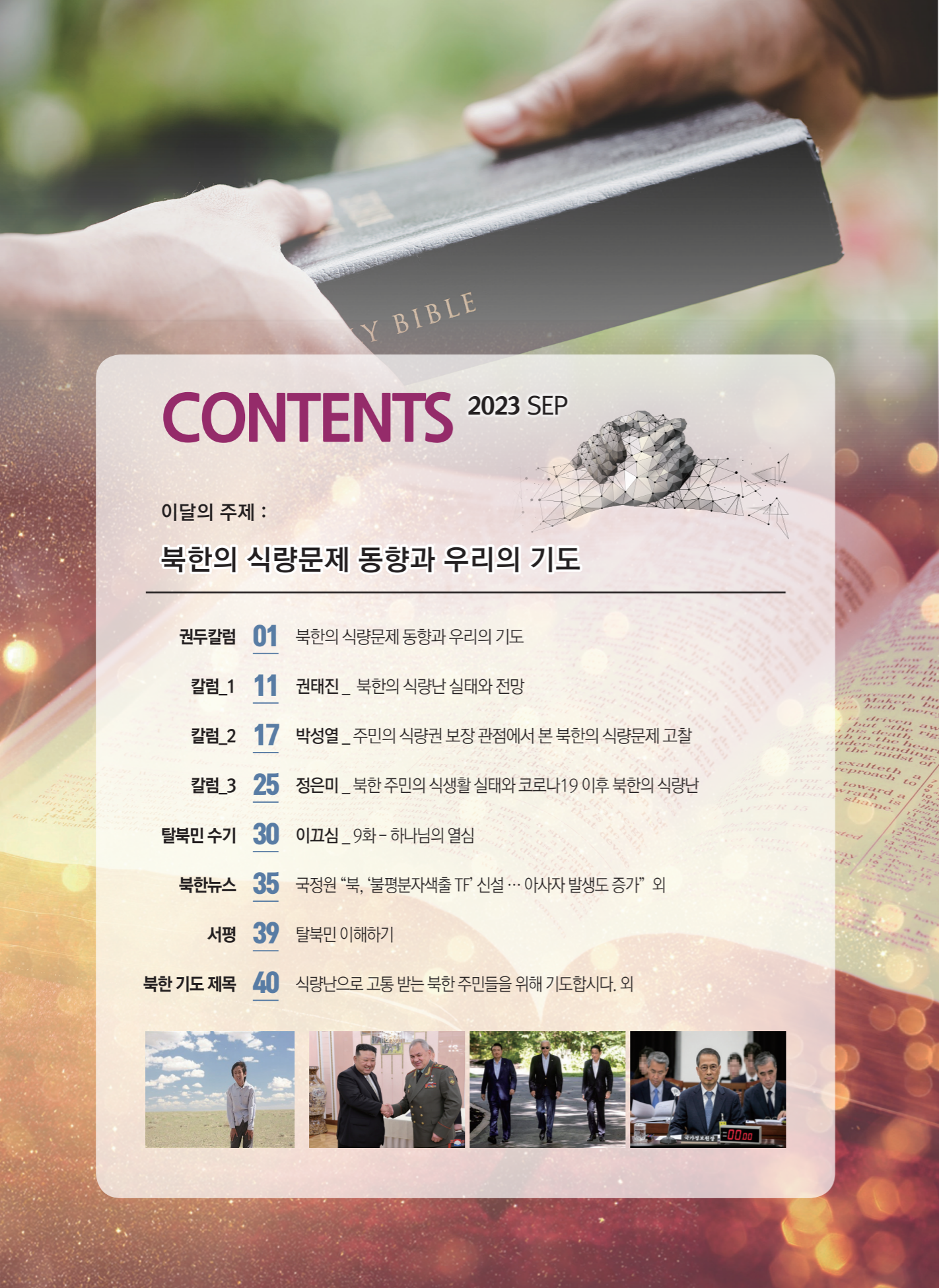
북한뉴스

국정원 “북, ‘불평분자색출 TF’ 신설 …
아사자 발생도 증가”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CONTENTS 2023 SEP



이달의 주제 :

북한의 식량문제 동향과 우리의 기도

- 권두칼럼 **01** 북한의 식량문제 동향과 우리의 기도
- 칼럼_1 **11** 권태진 _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전망
- 칼럼_2 **17** 박성열 _ 주민의 식량권 보장 관점에서 본 북한의 식량문제 고찰
- 칼럼_3 **25** 정은미 _ 북한 주민의 식생활 실태와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식량난
- 탈북민 수기 **30** 이끄심 _ 9화 - 하나님의 열심
- 북한뉴스 **35** 국정원 “북, ‘불평분자색출 TF’ 신설 ... 아사자 발생도 증가” 외
- 서평 **39** 탈북민 이해하기
- 북한 기도 제목 **40** 식량난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외



권두칼럼

북한의 식량문제 동향과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서론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소식이 연초부터 심상치 않다. 지난 2월 개성시에서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고위 간부가 두 차례 급파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¹ 지난 5월 황해남도에서 서해를 통해 보트로 귀순한 일가족은 일부 지역에서 인육 취식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북한 내 식량난이 극심하다고 전했다.² 올 6월에는 BBC코리아가 데일리NK와의 합동 취재를 통해 북한에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부의 소식을 전하며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보도하기도 했다.³

이러한 식량난의 구체적인 소식은 북한이 과거 ‘고난의 행군’ 과 같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그렇지만 북한의 대외 행보에서는 극심한 식량난의 모습이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식량 생산량도 큰 폭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이 과장되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김정은 정권은 농업분야에서 여러 노력을 보이고 있다. 2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향후 10년 간 농촌 지역의 단계적 개발 방안을 담은 농촌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올 2월 말에는 '농업 문제'만을 주요

1 北 개성에 하루 수십명씩 아사자...김정은, 두차례 간부 파견", 연합뉴스 (2023.02.06),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6065400504>>

2 [단독] 서해 NLL 탈북 가족, '북한 극심한 식량난에 인육 취식 소문', BBC코리아 (2023.06.13), <<https://www.bbc.com/korean/news-65857970>>

3 북한 내부 주민과의 BBC 독점 비밀 인터뷰 '식량 부족해 이웃들 굶어 죽어', BBC 코리아 (2023.06.15), <<https://bbc.com/korean/articles/cn3e4v9lmvro>>

안건으로 삼아 전원회의를 두 달 만에 다시 열기도 했다. 최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무회의를 열어 분조관리제와 독립채산제 등 농업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노력이겠지만, 농업 정책을 자주 건드리다보니 식량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다.⁴

북한의 식량난은 주민들의 생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선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의 실태가 어떠한지 관련 자료와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도제목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농업 생산과 식량 공급

북한의 식량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다. 농촌진흥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40만톤에서 470만톤 선에 머무르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440만톤 이상의 생산량은 꾸준히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약 451만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21년에 비해 18만톤 감소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⁵〉

	2018	2019	2020	2021	2022
식량작물 생산량 (천 톤)	4,558	4,640	4,398	4,692	4,505
증감률 (%)	-3.0	1.8	-5.2	6.7	-4.0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일반적으로 북한에 필요한 식량의 규모를 약 550에서 600만톤 수준으로 추정한다.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여기에 상당히 못미친다. 그렇다면 이 부족분을 수입으로 채워야 할 텐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에 식량 수입이 원활하지 못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에는 9천

만 달러를, 19년에는 1억 5천 8백만 달러를 곡물 수입에 지출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그 액수가 3천 7백만 달러로 감소했으며 21년에는 6백 8십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여 식량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⁶ 국제기구의 대북 식량 지원도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급감했다.⁷ 북한의 식량 수입량은 코로나 확산이 진정된 22년 후반기가 되어서야 다시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 중국 곡물수입 실적 (출처: 통계청)〉

연도	수입액(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천달러)	증감률(%)
2018	90,700	24,757	37.5
2019	158,987	68,287	75.3
2020	37,156	-121,831	-76.6
2021	6,829	-30,327	-81.6
2022	59,837	53,008	776.2

북한의 식량 생산과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객관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식량 생산량은 꾸준히 소요량에 비해 수십만톤 가량 부족했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식량 수입도 급감했다. 다만 북한의 식량 생산량과 수입량만 보아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기근으로까지 이어질 만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후로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급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90년대 대기근과 현재를 비교하면 식량생산량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농촌진흥청 추산 90년대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통계를 살펴보면 90년대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연 평균 400만을 밑돌았고, 특히 식량난이 심했던 90년대 중반 무렵에는 350만톤 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비교하면 현재의 식량 생산량은 양호한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일정 수준의 식량생산을 이뤄내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김일한(2023)은 북한

4 농업법도개정하는北, "극심한식량난반영", YTN(2023.08.04.),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041716438034>

5 식량작물 생산량, 통계청홈페이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55&conn_path=12> (조회일: 23.08.21.)

6 북한의 대(對)중국 곡물 수입실적, 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99&conn_path=12> (조회일: 23.08.21.)

7 WFP "코로나 이후 대북 식량 지원 75% 급감", 자유아시아방송 (22.09.02.),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itarian-09022022152614.html>

의 식량난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도되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이 식량 증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비료공급 및 다수확 종자개발/공급에서 성과가 나타날 경우 북한 농업은 새로운 ‘변칙점’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⁸

FAO 에서 제시하는 북한의 식량소요량에 대한 지적도 있다. FAO에서 제시하는 550만에서 600만톤의 식량소요량은 성인 1인 필요 열량을 2,130kcal로 계산하고 이 중 80%를 식량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필요 열량이 북한 실정에 비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채소, 과일, 고기나 생선 소비를 통한 열량 섭취량이 실제보다 작게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⁹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에 제 2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대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통일부에서도 현재의 식량난이 고난의 행군 당시와 같은 대규모 아사자 발생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¹⁰

〈90년대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출처: 통계청)〉

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식량작물 생산량 (천 톤)	4,020	4,427	4,268	3,884	4,125	3,451	3,690	3,489	3,886	4,222	3,590
증감률 (%)	-12.2	10.1	-3.6	-9.0	6.2	-16.3	6.9	-5.4	11.4	8.6	-15.0

식량 접근성의 격차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고려하면 북한의 식량 공급이 충분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사자 발생이나 기근을 예상할 수준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굶주림의 소식은 무엇일까? 거짓으로 떠도는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는 식량난의 정황이 뚜렷하다. 여러 뉴스 보도 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식량난으로 인해 엄중한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북한 주민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현재 북한 내에 굶주리는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식량 생산 외에도 북한의 식량난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주민들의 식량접근권의 훼손 여부, 즉 주민들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경로나 방법이 제한되거나 어려워졌을 경우이다. 식량난으로 인한 기근은 식량 수급 문제 외에도 식량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의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90년대 대기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박성열 외(2022)의 연구¹¹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 생산량이 매우 부족하기는 했지만 외부로부터 도입된 식량의 양 역시 상당했기 때문에 수리적으로 계산하면 총공급량 자체는 크게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이 아직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급 체계가 붕괴되면서 식량이 주민들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였고, 이것이 기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90년대와 비교하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접근성은 분명 나아졌다. 기존의 국가의 배급 외에도 시장을 통한 식량 교환 및 획득체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국경봉쇄, 이동 통제, 시장 활동 억제 등은 주민들의 식량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전 8-9시간이었던 장마당 운영시간을 3-5시간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마저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¹² 외부로부터의 물자 반입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물건이 부족해졌고, 이동통제 조치로 인한 유통과정에서의 장애도 발생했다. 이러한 시장 활동의 위축은 기본적으로 물자 거래 및 유통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식량을 사기 위한 충분한 구매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 주민들 중 다수는 시장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식량을 구매한다. 그렇지만 시장이 잘 운영되지 못하면서 돈벌이는 줄어드는 반면 식량 가격은 더욱 상승하였으니, 자연스럽게 일부 주민들은 충분한 양의 식량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주민들의 식량접근권의 악화로 인한 식량난은 북한의 중심 지역보다는 주

8 김일한 (2023), “최근 북한의 식량문제 평가와 전망”, 한반도 포커스 23년 5월호, 2023(5), 66-93.

9 최용호 (2020), “북한 식량 수급 분석을 위한 통계 현황과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2월호, 83-98.

10 통일부, 北 식량난에 “고난의 행군처럼 대규모 아사자 속출 아냐”, 동아일보 홈페이지 (23.02.16),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216/117918896/1>>

11 박성열, 한지민, 정원희 (2022), “북한의 식량 위기론: 1990년대와 2020년대 사례 비교 분석 - FAD와 FED 접근법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 91집, 87-90.

12 [北 주민 인터뷰] 상인들 “장마당 시간 늘려주길” 한목소리, 데일리NK (23.01.23.), <<https://www.dailynk.com/20230123-2/>>

로 지방의 소외지역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인수, 강경일(2014)은 철도와 도로망을 통한 각 지역간의 사회적 유통망과 이를 통해 생산된 식량이 분배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¹³ 연구에 따르면 신의주, 평성, 평양, 사리원, 해주는 사회적 유통망이 실제거리보다 가깝게 나타났지만, 혜산(양강도)과 청진(함경북도)은 상대적으로 흐름이 원활치 않았다. 또한 식량 분배에 있어서는 최초 유통이 시작된 지역에 관계 없이 약 48%의 자원이 평양과 평남(평성)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보인 반면, 자강(강계)과 양강(혜산)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알려진 황남(해주)와 황북(사리원)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자원이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식량생산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이 지역에서 식량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유통 예측량은 각 지역의 발육부진 아동 비율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평양과 평남 지방으로 형성된 북한의 사회정치적 구조가 식량 배분에도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자신의 신분이나 배경과 결부된 경우가 많아서 평양 및 그 인근지역과 지방 소외 지역 간에는 거주자들의 성분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된 지역 간 식량 분배의 차이는 단순한 지역 격차가 아닌 계층 격차, 빈부 격차의 다른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식량난은 전 국민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소외지역, 취약계층과 서민들 위주로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유통망을 통한 지역별 식량 분배량과 발육부진 아동 비율¹⁴〉

구분	황남	황북	평양	평남	평북	자강	양강	강원	함남	함북
지역별 식량 생산량(1,000t)	1,214	642	93	764	956	148	134	250	501	322
사회적 유통망 예측량(1,000t)	322	419	1,300	1,081	417	126	130	522	360	348
발육부진 아동(%)	29	31	22	31	31	41	45	34	39	38

13 김인수, 강경일 (2014), “북한의 사회적 유통망과 지역별 식량난”, 통일정책연구 23(2), 33-54.

14 위의 글, 49면 표 7 참조.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하여 살펴볼 두번째 요소는 바로 급감했던 식량 수입의 영향이다. 김규철(2022)¹⁵은 북한의 식량 물가가 안정되었던 2014년에서 2019년까지의 북한 장마당의 쌀 가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식량 물가는 대중국 쌀 수입가격에 영향을 받았고, 쌀 수입 가격은 중국 내부의 쌀 가격에 영향을 받는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부로부터 식량 공급이 원활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식량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고려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 장마당 식량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에는 식량 수입 제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2011년부터 코로나 사태 이전 해인 2019년까지의 북한의 식량 수입 중 99%를 차지하는 쌀, 옥수수, 밀 수입량의 평균을 내보면 매년 16.8만톤 수준이다.¹⁶ 비공식 무역량이 빠진 수치이긴 하지만 절대치로는 크다고 할 수 없는 양이다. 그렇지만 원활한 식량 수입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해주고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본다면, 식량 수입의 불안정은 공급 측면 뿐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악화 등을 유발하여 주민들의 식량 확보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것이다. 특히 유통이나 가격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 동안 식량을 주로 정식 수입 또는 밀수에 의존한 개인이나 지역이 있다면, 이러한 수입 제한과 국경 봉쇄 조치가 특별히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중국산 쌀이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지 않아 저렴하게 거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북한이 추진하는 양곡판매소를 통한 거래 일원화도 식량 수입과 연관이 있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양곡의 시장 거래를 금지하고 양곡 판매소를 통한 거래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한 편으로는 시장보다 저렴하게 쌀을 판매하여 시장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동안 시장에 맞겨놓았던 식량 분배 문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원래 북한은 양곡 유통을 국가가 독점하는 ‘전면배급제’를 시행했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아 붕괴되었고, 현재는 주요 간부와 가족, 핵심 기관과 기업소의 근로자와 가족, 군사 인원 등만 식량공급

15 김규철 (2021),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1-06.

16 위의 책, 43페이지를 바탕으로 필자가 계산.

소를 통해 배급을 받거나 공짜나 다름없는 국정가격으로 식량을 구할 수 있다. 농민은 수확 후 결산 분배를 통해 양곡을 일괄 현물분배를 받으며, 그 외의 계층은 적은 양의 배급 외의 부족분을 양곡 판매소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신양곡분배” 조치가 오히려 북한의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신양곡정책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식량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에 문제가 생겨 식량 분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¹⁷ 이는 다시 말해 양곡 판매소에서 판매할 충분한 식량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뜻한다. 임수호(2023)는 원칙적으로는 국가 수매 물량으로 판매 물량이 충당되어야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물량을 수매하는 상황에서 협동농장으로부터 더 많은 물량을 나라에 구매시킬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¹⁸ 그렇다면 양곡판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식량을 외부에서 도입해야 할텐데, 임수호(2023)의 연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충분한 양의 식량을 판매하기 위해선 최소 151만톤 가량의 식량 수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¹⁹ 이는 국제 식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2020년 가격 기준으로 약 4.8억달러 어치의 분량이다. 그렇지만 외화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매년 이 금액을 식량구입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양곡전매제의 미래는 부정적이라고 위 연구는 진단했다.

결언

북한은 2022년 하반기부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렸고 2023년에도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중국으로부터 장·단립종 쌀 6천 723만 달러 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 한 해 쌀 수입액 2천 260만 달러보다 약 3배 많은 액수량이다.²⁰ 또한 4,5월에는 비료 수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5월 가

17 통일부 “북, 작년 10월 신양곡정책 도입으로 식량 분배에 문제”, 연합뉴스 (23.02.16.),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6080400504>>

18 임수호 (2023), “북한 양곡전매제 복원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434호 (2023.05.19.)

19 위의 글, 8-9.

20 식량 선적 선박 남포항 드나들어...최근 6개월 쌀 수입액, 코로나 이전 연간 수입액 3배, VOA (2023.05.13), <<https://www.voakorea.com/a/7091172.html>>

장 많이 수입한 품목을 차지하기도 했다.²¹ 식량 부족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서두에 언급한 여러 농업 발전계획이나 정책 수정도 북한이 농업 분야의 개선을 통해 식량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의 노력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하기 쉽지 않다. 먼저 북한이 농업 발전을 통해 괄목할만한 증산을 이뤄내기란 쉽지 않아보인다. 제재 국면에서 관련 자재 및 장비 수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식량 수입도 북한의 외환보유량 등을 감안할 때 계속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답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의 식량문제가 접근성과 분배의 문제라고 본다면, 북한의 식량난 해결은 단순 농업 정책 변화로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관련해서 이지선(2023)은 “북한 당국의 자체적인 고립 통제정책으로 인해 식량 상황이 악화될 뿐 아니라 식량분배 문제로 발생한 피해와 부담이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²² 이런 맥락에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이후 보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우려스럽다. “신양곡정책”에서 관찰되듯 북한 당국은 식량 문제에 있어서 시장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주민들의 식량 접근권을 해치는 모양세이다. 식량난의 완화를 위해서는 현 정권의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거기에 덧붙여 북한의 식량난으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외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북한 식량난은 빈부 격차, 계층간 격차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방의 소외 지역의 가난한 계층의 주민들의 어려움이 특별히 가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시장에서 돈벌이를 해야 하지만 시장 활동은 원활하지 못해 충분한 구매력을 갖추지 어렵다. 양곡 판매소에서는 수급 문제로 식량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시장의 식량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높아져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양곡 거래 금지를 피해 거래해야 하다보니 그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겹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굶주리는 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국

21 북한,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 1위는 비료...수출 1위는 가발, VOA (23.06.21) <<https://www.voakorea.com/a/7145686.html>>

22 이지선 (2023), “가려진 식량위기”(Unknown Food Crisis): 국제 식량안보 관점에서의 북한 식량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440호 (23.06.16.), 7.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북녘의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많은 기독교인들이 추방당했고, 그 후손들이 여전히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교회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협력에 있어서 평양과 주요 지역보다는 지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현재와 같은 대북 공식 지원 제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의 국경 상황 변화에 따라 가능한 비공식 지원 루트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해본다.

북한의 식량난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고립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지선(2023)²³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차단된 상황에서 내부 식량사정은 속절없이 악화되고 있는, 즉 ‘가려진 식량위기’(unknown food crisis)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북한의 자발적 고립 행태가 국내 식량난 악화와 국제사회의 접근성 차단의 일차적 그리고 고질적인 책임이 있으며, “경제제재, 국경 봉쇄 그리고 정보 차단이 유발한 ‘복합단절형 식량위기’(food crisis in multiple isolations)”가 기근 또는 기근 유사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북한은 김정은을 꾸준히 애민적인 지도자로 내세워 왔다. 그렇지만 현 북한의 고립 정책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이 하루 속히 고립적 행태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애민 정책을 펼칠 수 있길 바라며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한다. 🐟

23 앞의 글, 국문 초록.

칼럼 1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전망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역대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약속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이밥에 고깃국’은 바라지도 않거니와 아이들에게 강냉이죽이라도 먹일 수 있도록 장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소박한 바람이다. 올 연초만 해도 함경도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까지 아사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으나 지금은 상황이 조금 누그러졌다. 북한 당국이 식량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국 등지로 부터 식량 도입을 서둘렀던 결과일까? 한때 킬로그램당 쌀 가격이 북한 돈으로 6,000원을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최근 5,00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이 고작 4,000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쌀값 하락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만 해도 시장에서 장사라도 하면 쌀밥은 아니더라도 하루 강냉이밥 두 끼는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하자 김정은은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고립의 길을 선택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였다. 정기적으로 식량을 배급받던 중간 간부마저 배급이 끊기다시피 되면서 너도나도 장사의 길로 나서는 바람에 제 살 깎아 먹기의 결과로 모두가 힘들게 되었다. 코로나의 유행으로 북중 교역이 거의 중단된 데다 북한 내 시장 유통이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매출이 줄고 수익이 뚝 떨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하루 1,000원 벌이를 목표로 한다지만 운이 좋아야 사나흘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주어질 뿐이라고 한다.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강냉이 300그램으로는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버겁다.

어쩌다가 북한이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나? 북한의 농경지 면적은 190만 ha로 남한보다 20% 정도 넓다. 대부분의 농경지는 식량 생산에 이용된다. 북한은 남한의 2배 가까운 농지 면적을 식량 생산에 할애하지만, 남북한의 식량 생산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만큼 북한의 농업(토지)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농업기술

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영농자재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 북한의 농가 호수는 남한의 2배, 농가인구는 남한의 4배에 달하지만 늘 농업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은 자기 농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는 사회주의 집단영농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아무리 역설하더라도 현실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대부분 나라는 이미 오래전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했고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비롯하여 몇 개국에 불과하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던 참혹한 경험을 했다. 당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죽음의 행렬에서 간신히 벗어난 북한은 체제의 전환을 시도하는가 싶더니 최고지도자와 핵심 간부를 중심으로 기득권 지키기에 매진하여 오늘날과 같은 체제 수호에 성공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혼란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레 시장이 많이 생겼고 시장을 경험한 주민들은 시장이 그들의 목숨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임을 깨닫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는 궤방꾼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주민은 장세를 낼 형편이 못돼 공식 시장에서 장사를 못하고 시장 주위만 맴도는 사람들이다. ‘고난의 행군’ 시절, 길거리에서 좌판이라도 펼치면 가족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사하는 게 너무 창피하여 두문불출한 나머지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일 리 없다고 여겼다. 최근에는 시장 주변을 맴도는 주민들이 단속원의 먹살을 잡고 왜 장사를 못하게 하는지 거세게 따지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추정한 북한의 연간 곡물 소요량은 정곡 기준 575.5만 톤이다(표 1). 여기에는 식용, 사료용, 가공용, 종자용 곡물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수확 후 감모량이 모두 포함된다.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식용 소요량은 451.3만 톤으로 쌀 162.1만 톤, 옥수수 211만 톤, 밀/보리 21.9만 톤, 잡곡 15.6만 톤, 감자 26.9만 톤, 콩 13.9만 톤으로 구성된다. 식량용 수요는 1인당 연간 175kg(곡물 기준)을 기준으로 북한의 전체 인구수를 곱하면 연간 451만 톤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양이면 북한 주민 1인당 1일 1,640kcal의 열량을 공급할 수 있다. 앞으로 인구가 늘게 되면 식량용 곡물 소비는 증가할 전망이다.

표 1. 북한의 연간 곡물 소요량 추정치

단위: 천 톤

용도	쌀	옥수수	밀/보리	잡곡	감자	콩	합계
식용	1,621	2,110	219	156	269	139	4,513
사료용		137			20		157
종자용	46	51	13	13	85	6	214
수확후감모	276	413	12	30	125	16	871
합계	1,942	2,710	244	198	499	162	5,755

주: 정곡 기준이며, 감자는 곡물 환산치임.

자료: FAO and/WF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ay 19, 2019.

사료용 곡물 소요량은 15.7만 톤으로 옥수수 13.7만 톤, 감자 2만 톤이다. 현재 북한에는 곡물을 사료로 하는 돼지나 닭의 사육두수가 정체 상태이며 특히 가정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돼지나 닭은 곡물보다는 음식물 찌꺼기 등 다양한 형태의 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료용 곡물 수요가 적지만 현대식 양돈장이나 양계장이 늘게 되면 사료용 곡물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최근 북한에는 현대식 사료공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향후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사료공장의 배합사료 원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연간 곡물 수요 중 사료용 곡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북한도 점차 한국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종자용 곡물 소요량은 21.4만 톤으로 쌀 4.6만 톤, 옥수수 5.1만 톤, 밀/보리 1.3만 톤, 잡곡 1.3만 톤, 감자 8.5만 톤, 콩 6만 톤이다. 종자용 곡물 소요량은 북한 내 작물별 재배 면적의 변화가 발생하면 종자 수요도 이에 따라 변화될 것이다. 다만 종자의 품질이 좋아지면 종자용 곡물 수요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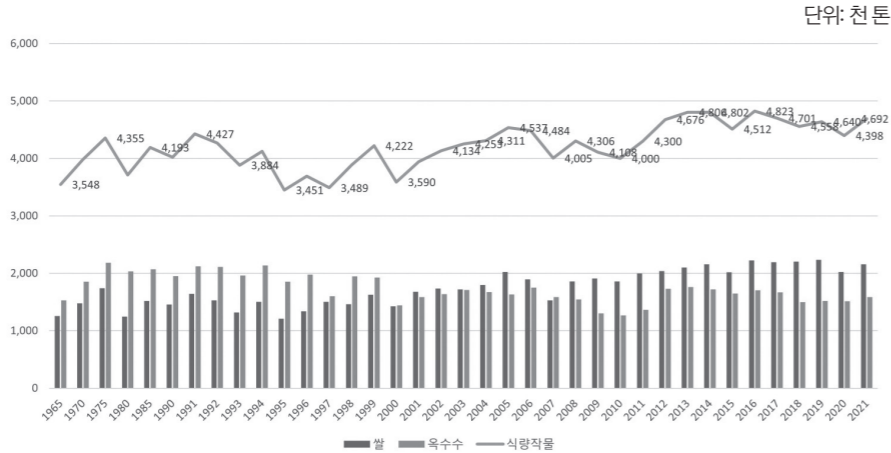
수확 후 감모란 곡물 수확 이후 운반, 탈곡,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손실로써 전체 곡물 생산량의 15%인 90여만 톤에 이른다. 이는 수확 및 운송장비의 부족에 따른 수확 작업 지연과 운반 지연, 탈곡 및 도정 장비의 노후화와 질적 수준 저하, 넓고 현대화되지 못한 곡물 저장시설로 인한 곡물의 손실과 질적 저하에 의해 발생한다. 수확 후 감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곡물 생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나 감모를 줄이려면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

향후 북한의 인구 증가와 함께 소득이 증가하면 식량 소비량은 점차 증가하리라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식량 배급제도를 통해 비교적 공평한 소비를 유도했다고 판단하지만, 점차 시장이 확대되어 개별 소비자가 시장을 통해 필요한 식품을 구매하는 구조로 전환되면 식품 소비의 다양화와 함께 식품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

다. 또한 소비자는 곡물 위주의 식단에서 점차 축산물 소비가 늘고 채소나 과일 등 다양한 식품 소비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게 될 것이므로 이 자체가 곡물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사료용 곡물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인구는 북한의 두 배이지만 전체 곡물 소비량은 북한의 네 배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북한의 곡물 소비량은 현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한해 575.5만 톤의 곡물을 공급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을 강조하지만, 연간 곡물 생산량은 450만 톤 내외로 100만 톤 이상 부족하다(그림 1). 부족한 식량은 수입 또는 외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림 1.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1995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이 상업적으로 수입한 곡물은 총 1,187만 톤으로 자체 생산량의 10% 정도이다. 심각한 식량난을 겪기 시작한 1995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연간 50만 톤 이상, 많게는 100만 톤 이상 식량을 수입하기도 하였다.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곡물 수입량이 연간 10~45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북한이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수입량이 더욱 감소하였다. 북한이 수입하는 곡물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도입한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1995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01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량이 150만 톤에 이르렀으나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지원량이 뚝 떨어져 최근에는 1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한

다. 1995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1,626만 톤으로 상업적 수입량 1,187만 톤을 능가한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량은 북한 자체 생산량의 14%에 이른다.

따라서 북한은 자체 생산한 식량과 자체 생산량의 24%에 해당하는 식량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21년에 이르는 27년 동안의 총공급량은 14억 2,700여만 톤으로 연평균 530만 톤가량의 식량을 공급한 셈이다. 이는 북한이 한해 필요로 하는 식량 소요량 575.5만 톤보다는 50만 톤가량 부족한 양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자체 식량 생산량은 450만 내외로 정체되어 있으나 상업적 수입과 외부의 지원은 현저히 감소하여 연간 100만 톤에 가까운 식량 부족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북한은 국가 수준의 식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계층별 식량 소비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다. 주어진 식량을 계층별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소득이 많은 가정은 다양한 형태의 식품을 소비하며 1인당 식량 소비량도 평균 이상이다. 식품의 종류와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소수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식량을 소비하게 되면 나머지 주민에게 돌아갈 식량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처럼 국내 생산을 초과하는 식품 수요량을 해외에서 도입하여 국민에게 공급한다면 식품을 둘러싼 계층 간 경합은 피할 수 있지만 북한과 같이 식품의 종류와 공급량이 거의 고정된 상황에서는 식품 소비자 사이의 경합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자력갱생을 부르짖는 북한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문제는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사료 곡물을 포함한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은 연간 2,100만 톤 이상의 곡물이 필요하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430만 톤에 그친다. 연간 1,700만 톤에 가까운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한국과 같은 잣대로 북한의 곡물 자급률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북한의 곡물 자급률은 75% 정도이다. 북한의 곡물 자급률이 남한에 비해 크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는 이유는 부족한 식량의 조달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외화가 부족한데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아 식량 부족 상황을 그냥 넘기고 있다. 북한 당국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북한의 식량난은 이처럼 심각하지 않을 것

이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이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식량권을 보장하려는 인식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한 주민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세계식량계획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유행 기간 중 적정한 수준의 식품을 섭취하는 북한 주민의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위 간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민은 영양 부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텃밭 농사를 짓거나 부업으로 1~2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식량 사정이 그나마 낫다고 평가한다.

북한 당국이 연간 3억 달러를 더 들여 밀가루나 강냉이라도 추가로 수입한다면 북한 주민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허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자 하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북한 당국은 무엇을 두려워하나? 북한이 외부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주민에게 알려지면 김정은 정권의 체면이 서지 않고 자칫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과거처럼 무턱대고 식량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국제사회는 지원된 식량이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모니터링하고 식량 지원을 통해 주민의 건강이 개선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식량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오늘날 북한 주민을 배고픔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농업을 포함하여 산업 전반의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상황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개발협력’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단순한 식량 지원보다는 이러한 방식의 협력을 선호하지만 ‘개발협력’의 전제 조건은 인도적 지원보다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하다. ‘개발협력’이 추진되려면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가 제시되어야 하고 협력의 방식이 투명해야 하며 협력의 성과가 양적·질적 지표로 확인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원조 방식이 예전보다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객관성, 투명성, 성과를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경제 제재를 받은 후에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욱 엄격해지고 지원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주민의 식량권 보장 관점에서 본 북한의 식량문제 고찰

박 성 열 교수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

1. 서론

북한의 식량문제는 1990년대 중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대북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계기 북한의 자체 봉쇄로 식량난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들이 잇따르고 있다.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난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과 논의 초점은 대체로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국제기구와 학계 중심으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추정과 식량의 분배체계 문제로 모아진다. 둘째, 외부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이다. 대북 식량 지원의 정당성을 놓고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하자는 쪽과 식량을 지원해봐야 군사 분야로 전용되고, 현 북한 지도체제만 강화시켜 줄 것이므로 북한의 지도체제 변화 없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상반된 논리가 제기된다. 이런 논의들은 각자의 북한에 대한 시각과 결부되어 북한 식량문제의 정치화를 반영하기도 하며, 자칫 식량 위기론의 당사자인 주민들의 생존과 그들이 처한 절박한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글은 이런 맥락에서 기본 인권으로서 식량권의 개념과 논의 추이를 살펴보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보장 가능성을 검토하며, 북한 주민들이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국제규범으로서 식량권 개념과 의미

식량은 사람의 생존과 생활에 절대적이다. 모든 사람은 식량에 접근하고 섭취

할 권리(Right to Food)가 보장되어야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다. 개인의 식량권 보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식량권이 포괄적인 인권의 하나로써 다른 인권의 보장 여부와 맞물리게 된다는 것이다. 적절한 식량 접근의 결여는 건강, 고용, 자녀 출산과 양육 및 교육 등과 관련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에 따라 주요 국제규약은 개인의 식량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 제25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는 식량권을 “모든 남성, 여성, 아동이 각자 혹은 공동체의 타인과 함께 언제나 적절한 식량 및 그것을 조달할 수단에 대한 물리적 및 경제적 접근을 가질 때 실현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CRC)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 인권 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다¹.

식량권의 요소는 가용성, 경제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적절성으로 정의된다. 가용성은 “생산지나 자연 자원으로부터 직접 먹을 것을 구할 가능성 또는 수요에 따라 식량을 생산지로부터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원활한 유통, 가공 및 시장 시스템”을 의미한다. 접근성은 식량에 대한 경제적이며 물리적인 접근 보장을 의미한다. 경제적 접근성은 적절한 식사를 위한 식량의 획득과 관련된 개인 및 가정의 재정비용이 그로 인해 다른 기본적 필수품의 획득과 충족을 위협하거나 손상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물리적 접근성이란 식량을 구하러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 아동, 환자, 장애인, 노인 등 육체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식량에의 접근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의 피해자들뿐 아니라 수감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적절성이란 식량이 개인의 연령, 생활 조건, 건강 상태, 직업, 성별을 고려한 식이요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식량이 그들의 육체적·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식량은 인간의 섭취에 안전하고 유해 성분이 없어야 하며,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 북한도, 1991년 8월 8일 남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유엔 회원국이자, 4개의 유엔 인권기구 즉,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 권리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가입국이다.

3. 북한 주민의 식량권은 보장되는가? -가용량과 획득성 관점-

북한 주민의 식량권 보장 가능성을 보기 위해 식량 생산량과 외부 지원을 포함하는 가용량과 주민들이 배급이나 경제활동을 통해 식량을 얻을 수 있는 획득성 관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가용량(availability) 관점

첫째, 북한의 식량 생산량에 대해 남한의 농업진흥청 자료는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큰 폭의 변동없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439만톤~482만톤 규모임을 나타낸다(〈표 1〉 참고). 식량 생산량에서 통상 종자용, 사료용, 가공·저장 과정 손실분(110만톤)을 제외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에 공급 가능한 식량은 329만톤~372만톤이고, 북한 주민(인구 2,500만 추정)이 1년치 필요한 식량 소요량(FAO 산정 기준: 1인당 연간 175kg)이 437만톤임을 감안하면 2012~2022년간 북한의 식량 소요량은 65만톤~108만톤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 북한의 식량 생산량 추이(2012~2022년,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단위: 만톤)											
연도	20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생산량(만톤)	467	480	480	451	482	470	455	464	439	469	451
증감률(%)	-	2.8	-0.1	-6.0	6.9	-2.5	-3.0	1.8	-5.2	6.7	-4.0

둘째, 식량농업기구(FAO)는 2023년 3월 농작물 전망과 식량 상황(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포함시키며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2〉는 FAO 발표 자료를 근거로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식량 수급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전년도 가을 생산량과 당해연도 봄 생산량+경사지와 텃밭 생산량)에 외부 도입(지원과 수입)을 합한 것이며, 총 수요량은 주민 식용과 종자용, 사료용, 수확후 손실분, 비축분을 합한 것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 3년여 기간은(2012~2014년) 식량 수급이 크게 차질을 빚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수급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례적으로 2019년은 국내 생산량

이 크게 증가하여 수급 균형을 달성하였으나 2021년에는 다시 106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단위: 만톤)

구분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총공급	530	528	528	518	490	539	525	490	585	489
총수요	539	543	537	549	549	561	552	575	585	595
부족	9	15	9	31	59	22	27	85	0	106

셋째,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꾸준히 이행되어 왔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대북 결의안(제 2270, 2321, 2371, 2375, 2397호) 채택으로 2018년부터 식량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대폭 축소되었다(〈표 3〉 참고).

〈표 3〉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실적(OECD:경제협력개발기구, DAC:개발원조위원회)

(단위: 천달러)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식량원조	8,415	10,834	8,976	14,202	5,432	5,786	0	0	0	0

북한의 식량 생산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살펴본 결과, 김정은 집권이후 2012~2022년간 북한 주민의 식량권 보장을 위한 가용량은 수요량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획득성(entitlement) 관점

식량권 보장은 식량 생산량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와 그 수준이 중요하다. 한 나라의 기근은 공급 측면의 식량 부족보다 개인의 식량획득 능력의 상실 혹은 박탈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 획득성을 보기 위해 공적배급체계(Public Distribution System)와 시장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의 공적 배급체계이다. 북한은 1952년 3월 식량배급에 관한 규정(내

각 결정 제56호) 제정에 이어 1957년 11월 ‘식량 판매를 국가의 유일 체계로 할 데 대하여’라는 내각 결정(제102호) 이후 전면적인 식량 배급제를 실시해 왔으나, 1980년대~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특권층과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배급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1990년대 이후 공적 분배체계(PDS)는 당과 국가기관, 군대 등 체제 유지에 필수적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과 가족에게 기본 배급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소, 공장 등은 책임 경영제를 통해 자체 수익을 발생시켜 소속 노동자들에게 임금 형태로 지급해 식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은 인구의 70% 정도로 추정한다. 이러한 공적분배체계는 최소 수준에서 공급하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협동농장(2,513개, 610만)과 국영농장(7개, 80만)은 농민들이 자체 수확 후 산출물을 일정 비율은 국가에 내고 나머지를 할당받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분배받는다. 식량 보급소(양곡판매소)는 주요 명절이나 계기시 주민들에게 시장가의 70~80% 가격으로 식량을 판매한다.

둘째, 시장을 통한 식량의 교환 획득체계이다. 시장의 식량 교환 획득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자유 및 거래의 안정성, 식량 확보에 필요한 개인 소득과 자산, 물가 추이가 중요하다. ‘거래의 자유’는 일부 지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 거래의 안정성은 재산권 보호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맥, 신뢰, 명성, 정, 상부상조 등 비공식 제도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식량교환 획득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인의 소득(임금, 자산 등)은 북한 도시주민 60~80% 이상이 시장 활동을 하고 있고, 사적 경제활동 주민의 60%가 5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리며, 종류층(월 50만 원 이상 수입)이상 가구는 월 생활비중 식비로 47.4%를 사용한다고 한다(평화문제연구소, 2019). 다만, 평양과 지방간 생활 격차, 도농간 빈부 격차 및 시장 활동에 따른 개인간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취약층의 식량 획득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시장 곡물 가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민 식량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곡물 가격 자체로서 주민 소득에 비해 급격히 가격이 올라가면 식량 획득이 어려워진다. 두 번째는 지역별 가격 차이로서 지역 간 가격 차이가 일정 기간 유지되면 가격이 높은 지역의 식량 획득력은 떨어진다. 시장의 식량 가격은 수요-공급과 유통체계, 그리고 정보의 유통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식량의 획득성(entitlement) 관점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적배급체

계(PDS)와 시장을 통한 식량 획득이라는 이중분배체계가 유지되어 오면서 주민들의 식량 접근성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시장 활동이 어렵거나 사회적 유통망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식량권 보장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북한 주민의 식량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국제규범은 개인의 식량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 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 규약 제11조 1항은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1조 2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한 후 다음의 두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며,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 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둘째, ‘식량 수입국 및 식량 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 식량 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등이다.

이러한 국제 규범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보장할 주된 의무는 1차적으로 북한(당해 국가)에 있으며, 2차적 의무자는 개별 국가 및 유엔과 같은 정부간 기구 등이다.

1차적 책임이 있는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수시로 식량문제를 강조하고 ‘농장 책임제, 포전담당제’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 첫째, 식량 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본과 기술력 투입이 집중되지 못한 채 ‘자강력과 자력갱생’을 모토로 한 노동력 동원체제를 강조하고 있어 식량 생산의 한계가 뚜렷하다. 둘째, 새롭게 도입한 포전 담당제 등도 미리 수매

할당 목표를 제시하는 등으로 농민의 자발적인 증산 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셋째, 북한이 자체 봉쇄를 단행하면서 외부와 단절되고 평양 주재 국제기구와 국제 NGO들도 철수함에 따라 식량의 외부 도입이 사실상 끊겨 주민의 식량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시장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층과 지방의 식량권 보장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배급에서 제외되고 시장에서의 식량 접근도 차단된 계층의 식량권이 가장 문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2차적 책임이 있는 국제사회는 2016년 이후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2020년부터 코로나-19 계기 북한의 자체 봉쇄가 단행되면서 대북 식량 지원과 식량 무역이 차단되고 있다. 북한에 상주하던 6개 유엔 산하 전문기구와 국제 NGO들도 2020년 평양에서 철수한 이후 대북 지원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 제재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나치오스(Natsios)는 “전체주의국가에서 그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일반 사람들에 불이익을 주는 것(처벌)은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살고 사람들은 죽게 된다”라고 하였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2022년 코로나-19 현상 종식 선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주요 NGO도 유엔의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아 북한의 영유아,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으나,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북한 주민 식량권 보장에 대한 국제사회 책임은 지원과 대북 제재라는 상충된 체계와 북한의 자체 봉쇄라는 복잡한 연계 구조 속에 놓여 있다.

5.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북한주민 식량권 보장과 관련된 가장 큰 책임은 당사국인 북한에 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자원을 식량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식량 확보를 위한 대외 개방은 차단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 문제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결부시킨 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북한 주민의 식량권 보장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식량권 보장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면제 메커니즘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다. 식량 지원시 분배의 투명성을 분명히 확보해 군사 전용 의혹은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지원 방향을 단순 식량 지원이나 구호 활동 차원을 넘어 농업 기술이나 식량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도 자력갱생을 내세워 국제원조는 거부하면서도 유엔 SDGs 이행에는 협조하고 있어 이와 연계해 농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식량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 식량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국제기구를 구성할 필요성이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북한이 남한과의 지원 협력은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FAO 등 국제기구와 개별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 농업개발기구, 동아시아 인도 협력기구’ 등 구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식량권 문제를 근본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 식량문제 해결의 핵심 관건은 북한 당국에 있다. 유엔과 국제 NGO 등이 국제 규범상 식량권 보장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제기하면서 2020년 철수한 FAO, WFP 등 6개 국제전문기구와 NGO의 평양 상주를 다시 추진하고 농업 개발과 식량 생산성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점진적으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식량권은 핵심 인권으로서 개인의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이고 모든 것에 앞선다. 북한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식량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책임 있는 주체들 간 협조하여 북한 주민 식량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칼럼 3

북한 주민의 식생활 실태와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식량난

정은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식생활 개선 추세 속 계층 간 불평등 뚜렷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인민생활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정권의 정당성을 주창해왔다.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표1>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조사 직전 연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식생활 실태를 파악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하루 세끼 식사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75.4%에서 계속 상승하여 2016년에 89.9%로 최고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시험한 2017년 이후 하루 세끼 식사 응답률은 서서히 감소하여 마지막 조사인 2020년에는 83.5%를 나타냈다. 또한 쌀밥 위주의 주식을 섭취했다는 응답률은 2012년 35.7%에서 2020년 68.8%로 크게 상승하였다. 고기 섭취 응답률(1주일에 2회 이상 섭취 응답률) 역시 2012년 24.8%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 62.1%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0년에는 54.1%로 하락하였다.

<표1> 북한 주민의 식생활 실태 변화 추이

(단위: %)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하루 세끼 섭취	75.4	81.1	74.5	86.9	89.9	87.7	87.4	87.9	83.5
쌀밥 위주 섭취	35.7	36.8	41.5	61.4	60.1	52.3	45.3	69.0	68.8
고기 섭취 (일주일 2회 이상)	24.8	28.0	28.2	53.4	51.1	55.0	45.3	62.1	54.1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사회변동』 해당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표 재구성.

전체 응답률을 기준으로 장기 추세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주민의 식생활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계층이라는 변수를 넣어 조사 결과를 다시 분석하였

을 경우 계층간 식생활 불평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쌀밥 위주로 식사했다는 응답은 김정은 정권 초기(2011~2014년)에 상층의 경우 90.9%에 달했으나, 중층 53.1%, 하층 16.9%로 계층간 큰 격차를 보였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계층 간의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정권 후기(2018~2020년)에 상층의 경우 88.9%, 중층 76.1%, 하층 39.3%로 상층과 중층 간 격차는 정권 초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하층 간 격차는 많이 좁혀지지 못했다.

고기 섭취 응답의 경우도 비슷한 구조를 보였다. 일주일에 2회 이상 고기를 섭취했다는 응답률이 정권 초기에 상층 84.8%, 중층 42.3%, 하층 6.8%로 나타나 주식 보다 부식에서 계층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주식과 달리 고기 섭취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층의 경우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중층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정권 후기에는 상층 75.9%, 중층 68.1%, 하층 25.8%로 상층과 중층 간의 격차가 크게 좁혀진 반면, 하층과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좁혀지지 않았다. 이 결과는 김정은 정권 10년 동안 북한 주민들 중 중산층에서 상대적으로 식생활 개선이 크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목표로 삼았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정책들의 혜택이 계층간 차등적으로 분배되었으며, 저소득 하층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한다.

〈표2〉북한 주민의 계층간 식생활 실태

(단위: %)

탈북 연도		2011~2014년	2015~2017년	2018~2020년
쌀밥 위주 섭취	상층	90.9	86.1	88.9
	중층	53.1	60.2	76.1
	하층	16.9	25.3	39.3
고기 섭취 (일주일 2회 이상)	상층	84.8	88.9	75.9
	중층	42.3	70.0	68.1
	하층	6.8	25.8	25.8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사회변동 2012~2020』을 활용하여 표 재구성.

밀가루 소비를 장려하는 식문화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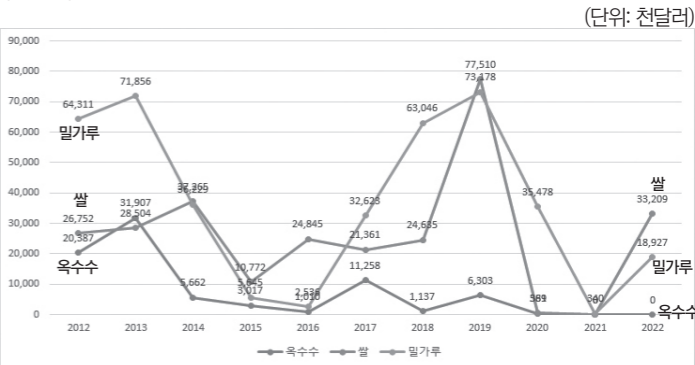
2021년 9월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앞으로 북한의 곡물생산구조를 기존의 벼와 옥수수에서 벼와 밀·보리농사로 전환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곡물생산구조의 변화는 지구 온난화로 옥수수의 생산성보다 밀·보

리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고, 겨울이 긴 북한에서도 이모작의 앞그루 작물로 밀·보리를 재배할 수 있으며, 비료 투하량이 옥수수보다 밀·보리가 더 적기 때문에 비료 조달과 토양 산성화 문제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주민들의 식생활에서 주식 곡물이 옥수수에서 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 김정은 정권 10년 동안 곡물 수입에서 큰 변동이 있었다. 쌀과 밀가루 수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에 옥수수 수입은 크게 감소한 것이다. 밀가루의 소비가 옥수수 소비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곡물생산구조의 전환에 대해 “인민들에게 흰 쌀과 밀가루를 보장함으로써 식생활을 문명하게 개선해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따라서 쌀과 밀·보리 위주로 곡물생산구조를 바꾼 것은 북한주민의 식생활 문화의 변화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2022년 12월에 북한 최초로 ‘밀가루음식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에는 식생활에서 주식으로 널리 이용할 수 있는 50여종에 15,000여점의 밀가루 음식과 가공품들, 그리고 요리와 음료들이 전시되었다.¹ 눈길을 끈 것은 이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한 여성의 인터뷰를 담은 노동신문의 기사이다. 기사에서 여성은 “우리 가정에서는 하루에 한끼쯤은 밥보다도 밀가루음식을 먹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²라고 말하였다. 이 기사는 간접적으로 부족한 쌀 소비를 줄이고 혼분식을 장려하려는 당국의 정책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기초식품인 간장과 된장을 담글 때 밀가루를 이용하도록 기술보급을 진행함으로써 밀 간장과 밀 된장을 대중화하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밀, 보리음식품평회를 개최하여 밀, 보리를 원재료로 한 음식 개발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밀, 보리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 개업도 준비하고 있다.

〈그림1〉북한의 대중국 곡물 수입 추이



출처: 한국무역협회(<https://kita.net>)

1 “보다 문명하고 풍성해질 우리 인민의 식생활문화를 선도해간다”, 『로동신문』, 2022.12.15.

2 위의 기사.

코로나19 이후 북한 식량위기 심화

코로나19는 북한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국경봉쇄와 비상방역체제 하에서 이동 및 상업활동의 제약은 북한 주민의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첫해인 2020년 북한 곡물 총생산량은 439.8만 톤으로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20년의 곡물 생산량 감소의 여파는 2021년 초기부터 나타났다. 2021년 4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은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직접 밝혔다. 이어 동년 6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지난해 곡물 생산계획 미달로 “현재 인민들의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공식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북한은 식량증산을 위해 대대적인 농업 및 농촌 개혁을 담은 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 2021년 12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 시대 농촌건설강령’이 그것이다. 이 강령은 1964년 2월 김일성이 발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김정은 시대의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둘 다 낙후한 농촌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농업의 획기적인 생산력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과 기존의 도시·공업·노동자 중심의 발전전략에 대한 조정(adjustment)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두 구상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


하지만 옥수수 대신 밀·보리 재배 면적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시행한 첫해인 2022년에 전체 곡물 생산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약 18만 톤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그림2 참조). 그 결과 2023년 연초부터 상승하는 식량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북한 당국은 중국으로부터 쌀과 밀가루 수입량을 전년 대비 크게 늘릴 수밖에 없었다. 구

체적으로 2023년 1분기 북한의 대중국 곡물 수입액은 4,338.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3.2% 증가하였다. 곡물별 수입 비중(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1분기에는 쌀 78.4%, 밀가루 20.1%, 보리 1.3%, 옥수수 0.1% 순으로 수입되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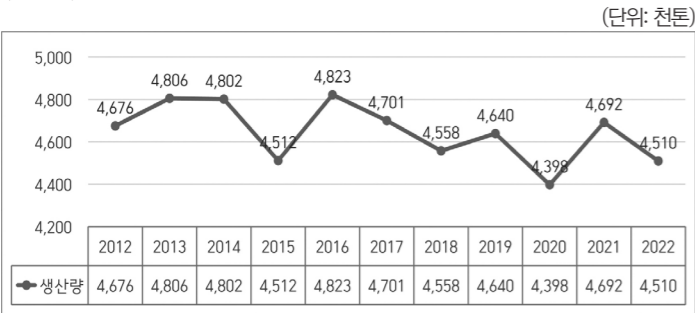
여러 국제기구 보고서들도 북한

의 식량 위기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세계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원제: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에 따르면 올해 3월과 7월 분기별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상당한 비중의 인구가 질 낮은 음식 섭취와 열악한 식단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식량안보 상황은 계속 취약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경제적 제약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세계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발표한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2021」(원제: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보고서는 북한 인구 중 영양 부족 인구율이 2004~2006년 33.8%, 2018~2020년 42.4%로 김정일 집권기에 비해 오히려 최근 김정은 정권에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목할 자료 중 하나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발표한 「2023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고서」(원제: Asia and The Pacific 2023 Regional Focus Model)에서 북한의 식량안보 상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세부 지표들 중에서 식량안보(food security) 항목에서 10점 중 9.2점을 기록해 전체 조사 대상국 38개국 중에서 최악을 기록했다. 그 밖에도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와 제도적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institutional)와 정부의 거버넌스(governance) 항목에서 각각 8.1점을 기록해 위기 대응역량의 취약성을 나타냈다.

이례적으로 북한 매체는 올해 앞그루 작물인 밀, 보리 농사 작황이 좋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쌀은 1kg당 5,000원대의 높은 가격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 식량 유통 역시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식량공급소와 양곡판매소에서만 취급하도록 정책이 바뀌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접근성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우리가 기아에 처해있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의 기초이다. 또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세계사적으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8.18 한·미·일 협력의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에서 3국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약속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2〉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이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https://kosis.kr/bukhan/>)

3 “북중 교역 동향,” 『북한농업동향』, 제25권 제1호(2016), p.85.

이끄심

9화 - 하나님의 열심

김 서 윤 전도사

우여곡절 끝에 다시 중국 길림(吉林市)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저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했지만 여전히 중국은 우리를 반겨주지 않을뿐더러 그들에게 우리는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들이었다.

옥이 이모는 우리를 위해 오래되었지만 조용하게 지낼만한 아파트를 구해주셨다. 그 집에 들어서니 모든 긴장이 풀리며 정신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던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온갖 병들이 속수무책으로 찾아오는데도 우리는 병원에 갈 수 없는 신분이었기에 집에서 몇 달 동안 링거만 맞아야 했다. 세 명 다 아파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밥도 넘기지 못해 다 토해내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침을 놓을 줄 아셨던 어머니가 우리에게 수액을 놔주셨고 어머니는 내가 놔주는 수액을 맞으셔야 했다. 무식해서 용감했다. 팔이 붓고 멍들고 했지만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리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추운 겨울, 변변한 이불 한 조각 없는 집에서 링거만 꽂고 기어다니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북조선이 아닌 중국이어서 감사했다.

한 번의 복송을 경험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중국에 눌러앉아 살 생각이 눈곱만큼도 남지 않았다. 언제 잡혀 갈지 모르는 중국은 더 이상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든 한국으로 가야만 했다. 하지만 자칫 서툴고 조금 한 남한행을 기도했다가 잡히기라도 하여 복송이 된다면 틀림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든지 총살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백방으로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복송되었을 때 감옥에서 “한국을 가기 위해서는 몽골로 가는 길이 가장 유력하다”고 들었다. 중국의 국경을 무사히 넘어, 몽골 사막을 지나, 안전하게 몽골 군인들에게 발견되기만 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어디가 국경이고 사막인지 몰라 자칫 중국 국경 경비대원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남한행으로 간주되어 복송된다. 어머니는 준비만 잘 해서 가면 사막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셨고, 이제는 중국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우리도 몽골을 통한 한국행이라도 가려고 마음먹었지만, 내가 아픈 탓에 사막을 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어 결국 몽골로 가는 길은 포기해야 했다.

우리 가족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그렇게 밤낮으로 오로지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던 우리에게 베이징에 브로커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일인당 천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이라는 너무나도 큰돈이 든다고 우리를 떠보는 것이었다. 우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에 가면 갚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착금이라는 걸 준다고 넌지시 던지는 말에 어머니는 정착금을 받게 되면 즉시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담보로 필요했다. 옥이 이모는 흔쾌히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아 주셨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서 돌아 온 조카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며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베이징에 브로커의 집으로 갔다. 그 브로커의 집에는 이미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고향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를 포함해 총 20명의 사람들이 한곳에 모였다. 그중에는 대부분이 건장한 어른들이었는데 그 어른들이 우리 모녀를 보자 반기기는 커녕 얼굴을 찌푸렸다. 안 그래도 어려운 길에 애들을 어떻게 데려 가냐며 말이다. 그들이 반기지 않았던 이들 중에는 나와 동생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80세가 다 되는 노부부도 있었다. 그 부부는 국군포로였는데,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먼저 간 딸이 부모를 한국으로 빼내고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노부부를 부탁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노부부와 아이들은 데리고 갈 수 없다며 브로커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가만 계시지 않았다. “어떻게 당신들만 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도 살아야 한다. 핏덩이 같은 애들을 데리고 다



〈영화 ‘크로싱’에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몽골 루트의 고비 사막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준이의 모습. 영화에서 준이는 결국 고비사막을 건너지 못하고 숨을 거둔다.〉

시 북한으로 갈 수 없다”며 싸우셨다. 어른들은 그러면 엄마만 가고 애들은 나중에 데려오라며 버텼다.

밤새 그러고 싸우고 있으니 노부부는 그냥 방에 들어가 주무시고 나는 엄마 옆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다. 듣다보니 나도 답답해서 한마디 하게 된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로 사람들의 초점을 바꿀 수 있었다. “그럼 아줌마 아저씨 들끼리 가면 되지 왜 아직도 안가고 여기 있는 겁니까? 우리 빼고 북경 대사관으로 가면 되죠.” 어머니는 어른들 얘기하는데 왜 끼어드느냐며 면박을 주셨지만 싸우던 아저씨는 제대로 말을 못하며 “위험하니까” 라는 말만 했다. 그때 브로커 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대사관 주변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신분이 노출될까 봐 얼씬도 못하고 있단다.” 알고 보니 그들 중에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잡히면 대처를 할 방법이 없어 대사관 근처도 가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다. “그럼 여태까지 한국 대사관 위치만 파악해 놓고 근처도 못 가봤단 말

이예요?” 그 당시는 남북 관계나 정치적 문제로 해외 탈북자 수 대비 많은 이들이 한국에 오지 못했다. 더구나 2000년대 초반 북한은 김정일의 방침으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송환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자칫 실수하면 단체로 북한으로 복송이 될 수 있었기에 안전에 안전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겁도 없이 말했다. “우리가 대사관 앞을 가볼게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등장으로 브로커 아저씨는 다시 판을 짜기 시작했다. 나와 동생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의심을 덜 받을 것이고, 의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더구나 우리 가족은 죽기 아니면 뭐가 더 있겠냐는 각오가 되었기에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총 세 팀으로 나뉘어졌다.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나와 동생이 행동 팀이 되었다. 1팀인 나는 갓 제대한 군인삼촌과 팀을 먹었다. 10년 동안 군인으로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삼촌이었다. 그리고 내 동생과 엄마, 노부부가 2팀으로 택시에 타서 대사관 철문 옆 도로에 대기하고 있기로 했다. 아무도 노부부 할머니 할아버지와 팀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 동생과 엄마가 그들과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건장한 어른들은 대사관 근처에 숨어서 상황을 보는 3팀이었다. 그래도 며칠 동안 대사관 주변만 알짱대던 아저씨들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보해냈기 때문에 쉽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8시 반쯤 직원들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쯤에 대사관으로 가기로 했다. 삼촌과 나는 1팀으로서 대사관 대문 앞에 가 있기로

했다. 준비를 하며 삼촌은 조그마한 망치를 사서 뒷주머니에 찼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다. 우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기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건물 안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웬 남자 한명이 속 곁에 와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중국어로 물어보는 것이었다. 나는 사전에 말을 맞춘 대로 옆에 있는 사촌오빠와 내가 대학생인데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서 비자를 알아보려고 북경에 왔다고 했다. 그 남자는 자기가 유학원이랑 여행사 사장인데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유학 보냈으며 여러 가지 유학에 대한 내용을 술술 알려주기 시작했다. 나는 열심히 듣는 척을 하였고,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삼촌은 듣는 듯 마는 듯 하며 지나가는 차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그때 한 봉고차가 대문 앞으로 다가오자 입구에 경비가 무슨 차인지 묻지도 않고 철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퀴가 달린 자동문이 속 열리자 봉고차가 들어갔다. 그때 급작스럽게 삼촌이 사장님과 얘기하고 있던 나를 끌고 봉고차가 들어가고 미처 닫히지 않은 문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는 얼떨결에 삼촌의 손에 이끌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고 경비실에서는 보초를 서던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 때를 놓칠 새라 택시에서 대기하고 있던 엄마와 동생이 보따리를 든 노부부의 손을 잡고 뒤뚱뒤뚱 하며 자동문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대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셔터문과 유리문을 지나야 했다. 봉고차가 문 안으로 들어와 마당에 서자 당직을 서던 직원이 셔

터 문을 열었다. 그러나 뒤를 이어 뛰어 들어오는 우리의 모습을 본 직원이 놀라서 셔터 문을 다시 닫기 시작했다. 때를 놓칠 새라 삼촌이 “셔터 잡아!”라고 외쳤고 나와 삼촌은 셔터 문 밑으로 들어가 문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탁 잡았다. 내려오는 셔터를 잡고 있으니 문이 뚫어지며 셔터가 고장이 나고 우리는 셔터를 잡고 건물 안을 바라보며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다. 유리문 안에서 직원이 놀란 눈을 하고 안된다며 문을 열어줄 수 없다며 돌아가라고 손짓을 했지만 나는 목 놓아 울면서 간절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했다. 그 사이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동생과 엄마도 우리 옆으로 와서 문을 열어주길 애원하였다.

어깨로 문을 받치고 있던 나는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깐 뒤를 돌아 우리가 들어온 방향을 바라봤다. 어느새 공안들이 짝 갈려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었다. 유학 상담을 해주던 사장님도 눈에 띄었는데 한손에는 유학브로서를 들고 입이 떡 벌어져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지금 잡히면 진짜 죽는구나 싶자 나는 더욱 소리를 지르며 달려달라고 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삼촌도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망치를 꺼내들었다. 유리문을 부수겠다고 손짓하자 대사관 직원이 드디어 알았다며 문을 열겠다고 했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우리는 모두 쓰러지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 상처가 난지도 모르고 다들 잘 들어왔는지 주변을 살폈다. 대사관 직원들은 안심하라며 약통을 가져다주었다. 그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베이징 산리툰(三里屯) 외교단지 내에 위치해있던 전 대한민국 베이징 영사관 모습 (사진=SBS 보도 캡처)〉

런데 나머지 어른들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 모녀와 군인삼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 여섯 명은 대사관 직원에게 어떻게 우리만 들어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쫓을 수 있냐며 울면서 호소하니 그들은 당황한 눈빛이 역력했다. 우리가 울면서 얘기하니까 진정시키며 들어올 때 우리 6명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다고 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진짜 한국 대사관에 들어온 건지, 진짜 기다리면 한국에 갈 수 있는지 직원들은 말 해 주지 않았다. 그저 식사하며 점심을 챙겨주신 고마우신 분들이었다. 하지만 물 한모금도 넘어가지 않았다. 다른 14명은 어디에 있는지, 혹시나 공안들에게 잡힌 건 아닌지, 왜 또 우리만 들어왔는지 내내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 간단하게 조사도 받고 긴장이 풀려 서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벽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세 시쯤 되었을까 밖에는 시골벽적인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으니 안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니 잠시 후 14

명의 어른들이 우리가 있는 방으로 우르르 들어왔다. 우리 20명은 확인하자마자 서로를 부둥켜안고 펄펄 울음을 터트렸다. 이는 분명 아침에 흘렸던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서러움과 공포의 눈물과는 다른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내용인즉슨, 그들은 우리 6명이 들어올 때에 타이밍을 놓쳤고 순식간에 공안들이 깔리는 바람에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들어오지 못했고, 브로커 아저씨는 낙심한 그들을 조용히 태워 그 곳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그들은 낙심하여 서로 자책하며 “어떻게 저 노인네랑 애들은 들어갔는데 우리는 못 들어 갈 수 있냐”며 호상비판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그곳으로 가보자고 하는 의견과, 안 된다 위험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가 그 래도 다시 한 번 가보자고 결정이 되어 다시 대사관 앞으로 왔다고 한다. 소망 없이 왔지만 그들에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바로 우리가 들어오면서 고장을 낸 셔터 문을 수리하기 위해 수리공들이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수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지나가는지 관심도 없이 어수선하게 수리를 하며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지나 차들 뒤로 숨어 건물 안까지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은 참 약한 자들을 좋아하신다. 그때는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해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세상의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 그렇기에 여전히 주님 앞에서 약해지고 싶고 여

전히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우리 모녀는 두 달 정도 대사관에 있다가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된다. 하지만 그토록 가고자 열망했던 곳에서조차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멸시 받는 자들이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셨고 결국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원하셨다. 이런 낮은 나를 찾아오시고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지금 멸시받고 있는 북한을 언젠가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들어 쓰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의 고향 북조선을 위해 기도한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계속) 

러 쇼이구 국방부장관, 북 전승절 맞아 방북… 미 “러, 포탄 구매 등 북한과 군사협력 증대 모색”




〈7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쇼이구 장관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북한의 '전승절'을 맞아 7월 25~27일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했다. 김 위원장은 쇼이구 장관을 직접 접견하고 러시아 대표단과 4차례 단독 행사를 가졌다. '무장장비 전시회 2023' 전시회장에서 화성18형, 화성17형 등 IC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 다양한 무기들을 쇼이구 장관과 러시아 대표단에게 일일이 설명하기도 했다.


전쟁 중인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만큼

양측간 모종의 군사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8월 3일(현지시간)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 구매 등을 통해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쇼이구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최근 방북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대한 군사 지원 제공을 계속 고려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8월 16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재 베루스를 포함해 슬로바키아 국적의 베르소, 카자흐스탄 기업인 디펜스 엔지니어링 등 3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들 3개 기업의 소유주인 야쇼트 므크르티체프는 지난 3월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 거래를 중재하고 20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포함한 자재를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언론 보도 종합) 

북한 “정찰위성 발사 3단계 비행중 오류로 또 실패…10월에 3차”

북한이 8월 24일 발사한 2번째 군사정찰위성이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 15분께 보도로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의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우주개발국은 오는 10월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 연합뉴스, 8월 24일)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베이징 운행 재개



〈재개된 평양-베이징 노선 항공편 탑승을 위해 북한 고려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 중인 북한인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걸어 잠갔던 국경을 서서히 개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월 22일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중국 베이징에 착륙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북중 하늘길이 열리게 됐다.

해당 여객기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9시 17분께(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서

우두 공항에 착륙했다. 해당 비행기편으로 중국으로 입국한 인원은 거의 없었지만, 북한으로 돌아간 이들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 관계자는 "수년간 해외에 발이 묶여 있던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특별 항공편"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민항 당국은 고려항공에 대해 '3월 26일~10월 28일 매주 화·목·토요일' 평양-베이징 노선 운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하고 타국과 인적 왕래를 전면 중단했으나, 작년 말부터 북중 화물열차가 운행이 재개되었고, 화물 트럭 운행도 올해 초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 8월 16일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국제태권도연맹(ITF) 세계선수권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참고: 연합뉴스, 08월 23일)

북 “월북 미군병사 망명 의사 밝혀”… 미 “검증 불가”



〈7월 18일 판문점에서 월북한 트레비스 킹 이등병의 마지막 모습. 이 사진이 찍힌 직후 군사분계선을 뛰어넘어 갔다. (사진=SBS뉴스)〉

7월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다 월북한 주한미군 트레비스 킹 이병에 대해 북한은 8월 16일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킹 이병이 미군 내 학대와 인종차별 때문에 월북했고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

꼈다”면서, 북한이나 제3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발표에 대해 미국은 “검증할 수 없다”며 그의 안전한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킹 이병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참고: KBS, 8월 16일)

북, 농업법 개정… 분조관리제·독립채산제 등 손봐



〈김정은 위원장이 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인 강원도 안변군 오계리 일대를 돌아보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월 1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상무회의를 열어 농업법을 개정하고 분조관리제와 독립채산제 등 농업개혁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생산지도와 기업관리개선,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실시와 정치적 및 물질적 평가에 관한 내용들, 농업생산과 생산물의 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내용들이 수정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상무회의를 열어 농업법을 개정하고 분조관리제와 독립채산제 등 농업개혁

분조관리제의 분조는 7~8명 규모로 구성된 협동농장 내의 조직으로 친인척과 가족으로 구성돼 사실상 중국의 가족농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북한 농업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독립채산제는 계획보다 추가로 생산된 양의 일정 부분을 생산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가족 단위의 분조가 초과생산한 농산물은 시장에 내다 팔아 소득을 늘릴 수 있다.

북한이 생산단위를 가족을 단위로 축소한 분조관리제와 초과생산물량의 자율적 처분이 가능한 독립채산제라는 농업개혁의 두 핵심축을 수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법조문이 확인되면 김정은 체제 농업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연합뉴스, 8월 4일)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선언 주목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월 18일 미국

이에 따르면 3국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공동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도 출범하기로 했다.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세 정상은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 합의했다. 아울러 3국 협력의 장기적인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등 총 3건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한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밝혔다. (참고: BBC 코리아, 8월 19일)

국정원 “북, ‘불평분자색출 TF’ 신설 … 아사자 발생도 증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8월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불평·항의가 생기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국가정보원이 8월 17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북한에서 아사(餓死)한 사람이 최근 5년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북한 내부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다고도 보고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있음에 따라, 북한 당국이 지역 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TF를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 당국은 2023년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고, 보위부 또한 안전원 등의 총기 소지 권한을 확대하면서 그 부작용도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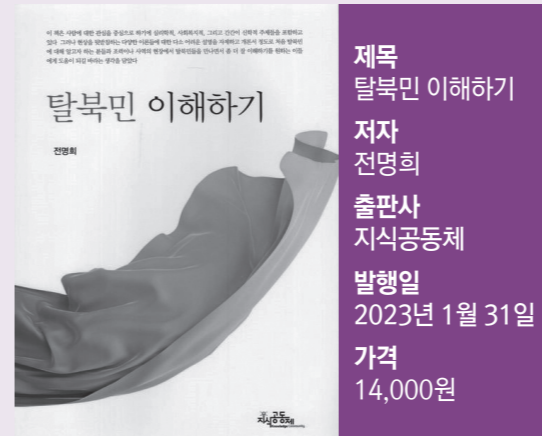
탈북과 관련해서는 "국경이 개방되면 탈북자 증가 추세가 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탈북 브로커의 거래비용이 급증해 국경이 개방된다 해도 이 비용이 떨어지지 않는 한 탈북자 급증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북중 교역 관련해서는 "5월부터 1일 1회에서 2회로 열차 운행을 증편했고, 일부 세관은 6월부터 개방해 교역 활성화를 도모 중"이라며 "중국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북한 범법자의 조기 송환을 전격 수용하고, 환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수천 명의 귀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우 전원 철수 후 선별적인 수용 입장이나 북한은 노동자 파견 규모 유지를 요청하면서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파악하기로 북한의 1~7월 아사자가 240여건으로, 최근 5년 평균 110여건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사적인 곡물 거래 금지 정책과 군량미 우선 배분으로 곡물가가 계속 고공행진 속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사이버 금전 탈취 등 불법적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올해 총 1억8천만달러 상당의 해킹 사고·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 상반기 석탄 밀수출량은 약 170여만t으로 2022년 상반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금과 또한 올해 상반기 580여kg을 밀수출해 작년 상반기에 비해 5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참고: 연합뉴스, 8월 17일) 🐼



통일과 북한 선교를 고민하는 일선 교회들이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가 탈북민 사역에 관한 것이다. “교회가 탈북민의 정착을 돕고 잘 섬겨야 한다, 교회가 탈북민 복음화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곤 한다. 그렇지만 탈북민들을 대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남북의 문화적 코드나 가치관도 다르고, 탈북민들이 겪는 탈북 과정에서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트라우마 등은 인격적 관계성을 형성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영혼을 직접 대해야 하는 교회 사역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꼭 짚어서 탈북민의 심리와 사고를 잘 설명해주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오늘 소개할 책, “탈북민 이해하기”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탈북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취지로 쓰여진 책이다. 이 책은 ‘탈북민 이해를 위한 관점들’, ‘북한에서의 삶 이해’, ‘탈북민의 삶 이해’, ‘탈북민의 트라우마 경험과 회복’, ‘탈북민의 종교 및 신앙경험 이해: 기독교를 중심으로’, ‘남북한 사회 함께 이해하기’라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나열하기 보다는 탈북민의 삶과 심리, 신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탈북민과 직접 마주해야 하는 일선 교회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 안에는 세부 주제별로 간단하게 고민해볼만한 질문을 담은 “생각해 봅시다” 코너가 위치하고 있는데, 토의나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고서 심리 상담이나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내용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이 이 책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인 탈북민의 심리나 치유 관련 도서에서는 기독교적 관점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경우는 드문데, 이 책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탈북민의 자기 발달과 치유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신앙 서적이나 간증, 설교에서 묘사되는 메시지와는 또 다른 언어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탈북민의 회복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다.

책의 난이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형식의 책으로서 많은 자료를 인용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딱딱하지 않게 다듬은 흔적이 느껴진다. 주제의 특성상 이론적인 내용도 재밌지만, 그와 함께 여러 탈북민들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어 이 책이 단순히 책상에서 쓰여진 연구서적이 아닌 실제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탈북민에 대해서 많은 전문 서적과 수기, 간증집 등이 있지만 심리나 사회복지적인 언어로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켜 다룬 책은 흔치 않았던 것 같다. 이 책의 서문은 저술 목적에 대해 탈북민 이해를 위한 개론서로서, 또 학문적 이야기보다는 현장에서 활용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취지처럼 교회나 모임에서 함께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책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탈북민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면 여러 성도들과 함께 탈북민 사역에 나설지 고민하는 교회라면 오늘 소개드린 “탈북민 이해하기” 책을 참고해보시라 권해본다. 🐼

1 식량난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으로 인해 연 초부터 아사자 발생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올 5월 6일 서해를 통해 탈북한 일가족은 “북한의 일부 마을에서 인육 취식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식량난이 극심한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식량난은 소외지역과 취약계층 위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의 극심한 빈부격차, 계층간 격차와 맞물려 있습니다.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방의 소외지역 주민들, 그리고 가난에 시달리는 취약 계층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이유로 외진 지역, 산간 오지로 추방당한, 식량 부족의 어려움을 더 크게 마주하고 있을 기독교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민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정책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장 활동을 제한해 왔으며, 이는 주민들의 식량접근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북한은 “신앙정책”을 실시하여 양곡의 시장 판매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판매소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 안정과 국가의 식량 통제 강화를 위한 이 조치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충분한 양의 식량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식량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보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견제와 국가 통제 강화 정책이 재고되고 진정으로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애민’이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 4월 발생한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지하교회 적발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도된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지하교회 적발 및 기독교 박해 사건이 보고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 사상 통제와 종교 박해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혀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시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가 희생당하는 복녘의 성도들을 잊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이 8월 16일 대규모 태권도 선수단 파견을 진행한데 이어 북중 항공편이 8월 22일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됨에 따라 북한이 국경의 문을 열고 대외 교류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국경을 중심으로 왕래하는 북한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교 현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 경험있는 선교사님들 상당수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중국의 추방으로 인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다시금 회복하는데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으로 선교활동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성령 충만하고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안전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강제 복송의 위기에 처한 제 3국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풀리면서 그동안 미루어졌던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국 내 탈북자 구금시설이 확장되고 최대 2천여명의 북한 사람들이 수감되어 강제 송환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관련 기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최근 강제 복송의 우려로 인해 북한 여성들이 두려움에 대피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8월 17일 국정원은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 재개 관련하여 중국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북한 범법자의 조기 송환을 전격 수용하였다고 언급하며 탈북자 복송에 대한 우려를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복송당하는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독교 신앙 및 선교사 접촉 여부 등이 발각될 경우 정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6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들의 석방과 송환되는 해외 북한사람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해외 노동자들이 팬데믹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외 교류 재개에 맞춰 해외 채류 북한인들의 대규모 송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북한 주민들은 오랜 해외 생활을 통해 외부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였고, 특별히 선교사나 현지 기독교인과의 접촉을 통해 복음을 받아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앙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김정옥(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으로 북러 군사 협력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발사 실패했던 인공위성을 8월 24일 재발사 하였으나 또다시 실패하였습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안보 문제를 포함해 3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신냉전 구도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 북미관계, 그리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복음적인 통일로의 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각 국의 지도자들의 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8 복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봉쇄기간동안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국경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해왔고, 그러다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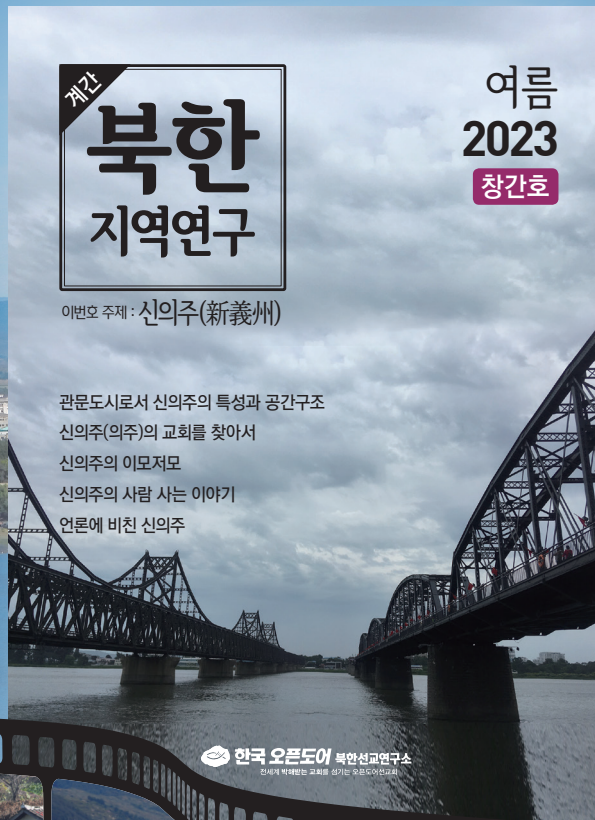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3년 8월 31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2023년 여름부터 발간합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